

Ruth & Naomi: An Immigrant's Tale\*  
(룻과 나오미: 이민자의 이야기)  
Ruth 1:1-18 (룻 1:1-18)

(Slide 1: Tim with Lily) My younger son Tim delights me with his devotion to his first born, Lily. There is just something about babies that fills our hearts with joy and with hope in the future. Tim's wife, Alya, moved to the US from Russia when she was 10. Her grandparents and elderly aunts speak primarily Russian. And while her parents function very well in English at work, with their friends, and at home, they are most comfortable speaking Russian. And so, Tim and Alya have decided to raise Lily to speak both Russian and English (video clip): (슬라이드 1: 팀과 릴리) 제 둘째 아들 팀은 자기 첫 아이 릴리에 대한 헌신으로 저를 기쁘게 합니다. 갓난 아이들에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주는 무엇이 있어요. 팀의 아내, 알리야는 10 살 때에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녀의 조부모와 이모 할머니들은 주로 러시아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녀의 부모는 직장에서나 친구들과는 영어로 이야기지만, 집에서는 편하게 러시아어로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팀과 알리야는 릴리를 영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도록 키우기로 했지요.

When I asked Tim why they were teaching Lily Russian, he said it was all about relationships: They want Lily to be able to communicate with her grandparents and other relatives in the language in which they are most comfortable expressing themselves. For immigrant families, what to keep and what to shed of their "culture of origin" is an important source of identity and discernment.

내가 팀에게 '왜 릴리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려고 하나?'고 물었을 때 팀이 그랬어요. '관계 때문이에요.' 릴리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편히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러시아어를 가르쳐서 그들과 편하게 의사 소통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이민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문화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체성과 분별성의 중요한 근원이지요.

In today's world, 258 million people live in countries not of their birth: 19% of this total live in the US. In N. American, 42% of the population growth from 2000-2015 was from migration. Germany has taken in more than a million immigrants since 2015, many fleeing war and chaos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When we visited S. Africa, we were amazed at how the local African population resented the migration of Africans from other nations, fearing they were "taking our jobs." How many here came as immigrants or have parents who came as immigrants? (show of hands) You know this story well.

오늘날 약 2억 5천 8백만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산다고 합니다. 이들 중 19 퍼센트는 미국에서 살고, 북아메리카에서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42 퍼센트의 인구 증가는 이민에 기인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2015년 이후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전쟁과 혼란을 피해 피난한 난민 백만명 이상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남아공화국을 방문했을 때에, 저희는 현지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그들의 직장을 뺏어 간다고 원망하는 것에 놀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민자로 아니면 부모를 따라 이민 오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Slide 2: Going to Moab) Today's story is a story of immigration. Naomi and her husband left their home in Bethlehem because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They immigrated to Moab. Ironic, since Bethlehem means *"the house of bread"* and was renowned for its grain. Most Israelites considered Moab to be a place of death and destruction. But when you are in the middle of a famine, you do what you have to do. In Moab, Naomi's husband died. Then, her two sons married two local girls, Orpah and Ruth. Life went on.

(슬라이드 2: 모압으로 가기) 오늘의 이야기는 이민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은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의 집을 떠났습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였지요. 역설적이지만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란 뜻으로 그곳은 곡식이 많이 산출 되는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사람들은 모압을 죽음과 파괴의 땅이 될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극심한 기근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했어요.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은 현지의 모압 여자, 오르바, 룯과 결혼을 했지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Slide 3: The Women Grieve) Naomi's life was hard: first one son died, then the other. Suddenly, Naomi has no one but her daughters-in-law. She urges them to stay in Moab and make a new life for themselves in their homeland (slide):

나오미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고 곧이어 둘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오미에겐 두 며느리 밖에 남지 않았지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고향 모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Go back each of you to your mother's house. May the **LORD** deal kindly with you, as you have dealt with the dead and with me. <sup>9</sup>The **LORD** grant that you may find security, each of you in the house of your husband." Then she kissed them, and they wept aloud. (Ruth 1:8-9)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Naomi was a stranger in a strange land. In ancient Israel, names have meanings. Naomi means "sweet." But, whatever sweetness there was in Naomi's life had shriveled up and died. Naomi decides to go home—and her daughters-in-law offer to come with her. She discourages them (slide):

나오미는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달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삶에 있었던 달콤함은 다 말라버리 없어져버렸습니다. 나오미는

고국으로 돌아가려 결심을 했고, 그녀의 두 며느리들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만류했지요.

Turn back, my daughters, go your way...No, my daughters, it has been far more bitter for me than for you, because the hand of the LORD's has turned against me! (Ruth 1:12-13)  
돌아가 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 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Slide 4: Naomi) Sweet Naomi has become a bitter. Bitter people often choose isolation; they choose lonely roads. Naomi plans to return home alone—to Bethlehem---where the famine—the physical famine---has ended. But the spiritual and emotional famine in Naomi's life--the one that took her husband and her two sons-- has made bitterness her ongoing companion. This bitterness of heart and spirit now causes Naomi to push away the only family she has---Orpah and Ruth. Naomi feels cut off from her family—because there are no children---and from her homeland far away.

(슬라이드 4: 나오미) 달콤한 나오미는 더욱 강박해졌습니다. 강박해진 사람들은 종종 고립되길 원하고; 혼자가는 길을 선택하곤 하지요. 나오미는 기근이 끝난 베들레헴으로 혼자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삶의 기근,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데리고 간 정신적인 감정적인 기근은 그녀를 계속 강박하게만 했지요. 그런 마음은 그녀에게 남은 가족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룯을 밀어내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족과 멀리 떨어진 고국으로 부터 단절을 느꼈던 거지요.

At such a time as this---some word must be spoken. Ruth knew that. She speaks a powerful word to Naomi. (slide):

이런 때 룯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Do not press me to leave you or to turn back from following you! Where you go, I will go; where you lodge, I will lodge; your people sha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sup>17</sup>Where you die, I will die— there will I be buried. May the **LORD** do thus and so to me, and more as well, if even death parts me from you!" (Ruth 1:16-17)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Slide 5: Ruth & Naomi) Ruth decides to leave her homeland, and accompany Naomi back to Bethlehem. For Ruth, Naomi is "family" and she will leave all she knows and everyone she

knows so that Naomi will not be alone. Through her decision to immigrate, Ruth creates a future for Naomi. Ruth reminds Naomi her love. What Ruth is saying is, *Naomi, your people ARE my people; your God IS my God; therefore, where you go, I will go, where you stay I will stay. I am here for you!*

(슬라이드 5: 룯과 나오미) 룯은 그녀의 고국을 떠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룯에게 나오미는 가족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아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둔 채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오미가 혼자 외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녀의 이민 결정으로 룯은 나오미의 미래를 만듭니다. 룯은 나오미에게 그녀가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어머님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어머님을 위해서 있어요!”

(Slide 6: Naomi holding Ruth’s face) Naomi thanks her daughters-in-law for their “kindness.” The word that is translated *kindness* here is actually far more expansive. The Hebrew word is *hesed*. *Hesed* is often translated as “loving kindness”—but a better translation would be “fierce covenant loyalty.” Mama-bear kind of love—or think of it as a positive “Tiger Mom.” This word describes the nature of God. It describes moments of grace, undeserved love and mercy. Naomi is saying that in the kindness of Ruth and Orpah, she has experienced the love of God. Even though Ruth and Orpah are from another culture, and were raised in a different way, Naomi (a foreigner) experienced the love of God through them.

(슬라이드 6: 나오미가 룯의 얼굴을 감쌌)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친절에 감사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친절’의 의미는 실제로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Kindness 는 히브리 단어 ‘헤세드’가 원어인데, 종종 ‘애정어린 친절’로 번역이 되지만, 더 나은 번역은 아마도 ‘강렬한 언약적 충성’일 겁니다. 엄마 곱같은 사랑, 혹은 좀 긍정적인 ‘호랑이 엄마.’ 이 단어는 주님의 사랑의 성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은혜, 자격 없는 사랑이나 자비를 받는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룯과 오르바의 친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룯과 오르바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유대인과는 다른 교육 방식으로 자랐지만, 이방인인 나오미는 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Ruth and Naomi set off for Bethlehem together. It is here we can see the depth of sadness that has enfolded Naomi. As she enters Bethlehem, some old friends see her on the road. “*Are you Naomi?*” they ask. (slide):

룯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습니다. 우리가 나오미를 감싸고 있는 슬픔의 깊이를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길에서 그녀를 본 오랜 친구들이 “나오미 아냐?”하고 물어 왔지요.

<sup>20</sup>She said to them, “Call me no longer Naomi, call me Mara, for the Almighty has dealt bitterly with me. <sup>21</sup>I went away full, but the **LORD** has brought me back empty; why call me Naomi

when the LORD has dealt harshly with me, and the Almighty has brought calamity upon me?”  
(Ruth 1:20-21)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 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Naomi is in such deep despair, she tells her friends to call her “Mara,” which means bitterness. This once sweet woman has taken on a new identity—a woman bitterly disappointed by life and by her God. This is the story of many immigrants---they travel to a new land, fleeing persecution, fleeing famine, fleeing war, or simply seeking a better life. But that new land does not always become the “promised land,” does it? Bitterness can come and inhabit our hearts when life disappoints us.

나오미는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을 ‘원망’이란 의미의 ‘마라’라고 친구들에게 불러 달라고 하지요. 한때에 달콤한 여인은 새롭게 자신의 삶과 신에게 처절하게 실망한 여인이 되어 버린 거지요. 이것은 박해를 피해, 기근을 피해, 전쟁을 피해 아니면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에 온 많은 이민자들의 얘기이지요. 하지만 새로운 땅은 언제나 약속의 땅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나요? 삶이 절망적일 때에 우리의 맘 속에 응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go to black) I have been blessed in my ministry by many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Bishop Cho was my first boss after seminary, and after seven short years in a local church, asked me to become your District Superintendent. I would not be here today without Bishop Cho’s love and care for me. I have learned so much from him. Who here knows what I mean? (*show of hands*)

제 사역은 이민 한국 교회의 여러분 덕분에 많은 축복을 받았지요: 조감독님은 제가 신학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상사이셨고, 제가 지방 교회에서의 짧은 7년 동안 사역 끝내자 저에게 지역 감리사가 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조감독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Kio Cho reached out to me to be her prayer partner, and I have learned so much from her deep spiritual wisdom. Who here knows what I mean (*show of hands*)?

Bishop Cho took a number of us on spiritual pilgrimages to Korea, so we could experience first-hand Korean Christianity and grow and learn. Many other Korean Americans have taught me about the unique blessings and challenges of the Korean American churches. 장기옥 목사님은 저에게 기도 파트너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셨지요. 그리고 그 분에게서 깊은 영적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말씀드리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 보세요? 조 감독님은 저희 목사들 중 여러 명을 한국으로의 영적 순례에 초청하시고 데리고 가신 덕에, 우리는 초창기 한국의 기독교를 경험할 수 있었고, 더 성장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많은 미국 이민자들은 한인 미국 교회의 특별한 은혜와 도전에 대해 알려 주었지요.

As I have listened, I have learned that churches like KUMC face a huge generational challenge: the “next generation” is more deeply influenced by American culture than the first generation of immigrants. How can we be Christian community together when the culture of one generation is different from the next? What is “essential” to Christian community, and what can be left behind as we mov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eeking to pass on the faith?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와싱턴 한인 교회같은 교회들이 커다란 세대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민 첫 세대보다 더 미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세대의 문화가 다른 세대와 다를 때에 기독교 커뮤니티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겨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전해 줄 때에 무엇이 기독교 커뮤니티에 꼭 필요한 것이고, 무엇을 남겨둬야 할까요?

I wonder what lessons we can learn from the story of Ruth and Naomi? Let us see what happens when Ruth becomes the immigrant, and Naomi the guide (slide):

**So Naomi returned together with Ruth the Moabite, her daughter-in-law, who came back with her from the country of Moab. They came to Bethlehem at the beginning of the barley harvest.** (Ruth 1:22)

우리가 룯과 나오미의 예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룯이 이민자가 되고 나오미가 안내자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봅시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룯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This is a foreshadowing. The Lord is going to use Ruth’s adaptation to the culture of Israel to bring a harvest into both Naomi’s and Ruth’s lives.

이것이 전조이지요. 주님은 나오미와 룯의 삶에서 수확을 주시기 위해 룯이 유대 문화로 적응하도록 하십니다.

(Slide 7: Naomi Instructs Ruth) Ruth and Naomi are both widows—they have no way to sustain themselves. Ruth is a stranger, and doesn’t know the Israelite culture and ways. So Naomi instructs Ruth on how things work. She sends Ruth to ask permission from the landowner Boaz to glean the grain that falls to the ground during the harvest.

(슬라이드 7: 나오미가 룯에게 알려 줍니다) 룯과 나오미는 둘 다 미망인입니다. 먹고 살 방도가 없는 거지요. 룯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의 문화나 생활방식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룯에게 생활 방식을 알려 주었지요. 룯을 추수 때에 땅에 떨어진 알곡을 줍을 수 있도록 보아스에게 허락을 받게 보냈지요.

(Slide 8: Boaz with Servant) Allowing widows and the poor to glean the “leftovers” from the harvest was one way that ancient Israelites helped those in need in their community.

Another way the community provided for widows was that the closest male relative could marry the widow and purchase, or “redeem” the property owned by the dead son. Thus a “redeemer” is someone who buys back something; someone who frees someone from captivity or oppression.

(슬라이드 8: 보아스와 일꾼) 과부에게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추수 때 남은 것을 줍도록 허락하는 것은 고대 유대인들이 그들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한 방안이었습니다. 과부를 돕는 또 다른 방법은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과 결혼을 하게하고, 죽은 아들이 소유한 재산을 사거나 회복토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되사는 사람 혹은 ‘구속자’는 어떤 물건을 도로 사들인 사람이나 억류나 탄압에서 어떤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었지요.

(Slide 9: Boaz Helps Ruth) When Naomi sent Ruth to Boaz the landowner, she knew that he was a potential Redeemer. Boaz was in the family line and could redeem her son’s name and property. Ruth’s fierce covenant love for Naomi brought them both back to Bethlehem--- but Naomi’s instruction of Ruth led to a future for both of them. How?

(슬라이드 9: 보아스가 롯을 돕다) 롯을 농장 주인 보아스에게 보냈을 때, 나옴이는 보아스가 잠재적인 ‘구속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가족이었고, 그녀 아들 이름과 재산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롯의 나옴이에 대한 강렬한 언약적 사랑이 그 둘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했지만, 롯을 인도한 나옴이는 두 사람을 미래로 이끌었습니다.

(Slide 10: Wedding) Well, Ruth gets to know Boaz as she gleanes in his fields. Boaz negotiates to become her “redeemer”—marrying Ruth and purchasing her husband’s property. They wed, and have a child. What we discover is that Ruth’s covenant loyalty to Naomi actually became the path to redemption, a way out of the famine and their vulnerability, to a great harvest.

(슬라이드 10: 결혼) 자, 롯은 보아스 농장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녀 남편의 재산을 도로 사고 그녀와 결혼을 하는 구속자속 되기 위해 협상을 합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롯의 나옴이에 대한 언약적 충성이 실제로 회복의 길이 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과 나약함에서 나와 더 큰 수확을 하는 길 말입니다.

(go to black) As I think about the generational transition that is beginning in many of our Korean churches, I imagine that the pastors and laity together have to discern---what about our “way of doing things” are habits we brought with us that are not essential and need to change? And what of our “way of doing things” are absolutely core to our covenant loyalty to God, are essential for “being church” in a way that is grounded in the Bible and is theologically sound? These are not easy questions. I believe the Korean American church has brought great vitality to the Virginia Conference—and not simply because you brought us Bishop Cho!

많은 한인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 교체에 대해 생각하면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우리와 함께 들어 온 습관이고,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구분해야만 한다고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 중 어떤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충성에 온전히 핵심적인 것이고, 또 성경에 기초하고 신학적으로도 건전한 방법으로 ‘교회가 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것일까요? 이걸 결코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저는 한인 미국 교회가 버지니아 연회에 커다란 활력소를 가져 왔다고 믿습니다. 단지 조 감독님을 여러분이 보내 주셨기 때문만은 아니구요.

What is interesting to me about the story of Ruth and Naomi is that it is Naomi (the one more familiar with Israelite culture) who becomes the “guide” for helping Ruth navigate a future for them both---a future with hope. This is in line with our usual way of thinking: it is the older generation who instructs the younger. But notice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Naomi is familiar with the culture, and Ruth who needs to learn. Naomi emigrates twice—once leaving home to go to Moab, once returning home from Moab. As she returns to Bethlehem—“the house of bread,” she is able to teach Ruth how to be “fed”—not just spiritually (by gleaning); and not just emotionally (by marrying). Naomi teaches Ruth how to be “fed” by the Lord. She is a blessing to Ruth, and in return, Ruth blesses her with a “son.” The younger woman and the older woman mutually bless each other. In our context, it may well be the “next generation” who provides the expertise for how to “be fed” spiritually by the Lord—how to thrive---in America for a church of Korean lineage.

나오미와 룯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많이 익숙한 나오미가 룯을 도와 두 사람의 미래로 이끌고 갔다는 거지요. 희망이 있는 미래로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늘상하는 생각과 궤를 같이 합니다: 젊은 세대를 가르치는 것은 기성 세대라는 것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오미는 관습에 익숙해 있고, 룯은 배워야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나오미는 모압으로, 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두번 이민을 갔었죠. ‘빵의 집’이라는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그녀는 룯에게 영적인 방법 아닌 이삭을 줌으로써, 또 정서적인 방법 아닌 결혼을 통해서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나오미는 룯에게 주님께로부터 얻어 먹는 법을 가르친 셈이지요. 그녀는 룯에게 축복이었고, 룯도 그녀에게 아들을 낳음으로써 보답을 했지요. 젊은 또 늙은 여인 두 사람은 서로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 가, 혹은 영적으로 잘 얻어 먹는가 하는 방법은 차세대가 줄 수 있습니다.

I love how my son Tim is himself learning Russian so that both he and Lily will be able to have a stronger relationship with Alya’s parents and grandparents. This “learning the language” is a sign to me of his “fierce covenant loyalty” to his wife and to her family.

저는 제 아들 팀 스스로가 러시아어를 배워서 자신과 릴리가 알리야의 부모와 조부모와 더 돈독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의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 대한 ‘강렬한 언약적 충성’으로 보입니다.

Increasingly as churches in American, we have to “learn the language” of a new generation of people—many of whom have not been brought up in the church, many of whom do not know Jesus. All of the churches in my District are struggling with how to connect to the “next generation” so that they might know the love of God in Jesus Christ.

미국의 교회는 점점 더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구역의 모든 교회들은 다음 세대와 어떻게 소통을 해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려 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What the story of Ruth and Naomi teaches us is that this challenge of evangelism is all about relationships: relationship with God and relationship with new people who do not yet know the Lord.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 주는 교훈은 ‘전도는 결국은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When Ruth’s baby is born, no one is more delighted than… Naomi! Indeed, the women of the village say (slide):

룻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나오미가 기뻐했습니다. 정말로 그 마을 여인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A son has been born to Naomi.” (Not to Ruth, but to Naomi!) They named him Obed; he became the father of Jesse, the father of David. (Ruth 4:17)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Now David was the famous King David—and who is King David’s most famous descendent?

[Jesus] And Jesus is *our*… Redeemer!

지금 다윗은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다윗 왕의 가장 유명한 자손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Slide 11 Women) Out of Naomi’s bitterness—out of all the losses and brokenness in her life, sweetness returns when Ruth bears a son! Even though her husband and her two sons die, through Ruth’s fierce covenant loyalty—Naomi now has a “son.” The women say to Naomi (slide):

(슬라이드 11: 여인들) 나오미의 절망에서,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심한 상태에서 룻이 아들을 임신했을 때에 달콤함이 다시 돌아 왔어요! 비록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룻의 강렬한 언약적 충성을 통해 나오미는 이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Blessed be the Lord, who has not left you this day without a next-of-kin… He shall be to you a restorer of life and a nourisher of your old age; for your daughter-in-law who loves you, who is more to you than seven sons, has borne him.** (Ruth 4:14-15)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늘그막에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And what brings about this transformation from death to life for Naomi? A decision by Ruth to travel to an unknown country so that Naomi would not be alone: a new life that began with these powerful words (slide):

Where you go, I will go; where you lodge, I will lodge; your people sha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Ruth 1:16)

무엇이 나오미를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를 시켰을 까요? 룯이 낫선 곳으로 이주를 해서 나오미를 홀로 있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강력한 말들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그렇게 했지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겨레가 내 겨레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Amen

\* I give thanks to Peggy Parker, who granted permission to use her woodblock images of the story of Ruth and Naomi.

룯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는데에 그녀의 나무 블럭을 이용하게 허락해준 페기 파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